



[문1] 의사들은 최고혈압보다 최저혈압이 높은것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 본태성고혈압에선 말초의 혈관저항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최저혈압이 항상 올라가 있으며, 최고혈압은 때에따라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고혈압보다 최저혈압이 높은 것을 위험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저혈압이 별로 높지 않거나 또는 최저혈압이 정상 수준인데도, 최고혈압이 몹시 높아져 있다면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등 본태성고혈압에 관계 깊은 병들의 발병경위를 보면 최고 혈압의 불안정한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오히려 최저혈압이 높거나 높지 않거나간에 최고혈압이 높아져 있으면, 고혈압으로서 중요시하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알아뉘야 할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혈압을 단 한번 측정해본 숫자만으로 성급한 판정을 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혈압이란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하루에 20밀리의 차이가 있는것이 보통이며,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이상의 변동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문2] 현기증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이 혹시 뇌졸중의 예고증상이 아닌지?

답 현기증을 일으키는 환자에 대한 조사를 보면 10~15%는 메니에르병이고, 35%가 고혈압이나 저혈압등 뇌순환(腦循環) 장애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대개 현기증이 생기는 것은 안정되었던 혈압이 갑자기 어떤 자극을 받아 최고혈압이 200밀리 이상으로 올라가면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혈관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좁아져 뇌순환장애가 일어나며 이때 현기증이 생깁니다. 또 혈압이 최고 170~180밀리이던 환자가 강압계의 투여로 갑자기 혈압이 내려가면(가령 120~130밀리 정도로) 현기증이 납니다. 이런 현기증은 두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일시적인 혈압의 강하로 피의 흐름이 나빠져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뇌경색(腦梗塞)이 일어난 때입니다.

현기증은 아침 일어날 때 가장 많고,몸이 피곤하거나 목욕후 또는 고개를 심히 돌이켰을 때도 간혹 일어납니다.

어쨌든 현기증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예고증상일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이럴 때는 현기증뿐 아니라 머리가 무겁고, 손발에 쥐가 나는 증상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 현기증이 일어나면 이것을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의사와 상의, 고혈압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편집실)